

박근혜 단독 면접방식 TV토론 공약 실천·통합 이미지 부각 주력

친여 인사 패널 구성·대본 유출 논란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26일 밤 단독 면접 방식의 TV토론에서 주요 공약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며 각 분야별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집권시 당정책을 통한 정국구상을 밝히는 등 통합의 이미지 부각에 주력했다.

하지만, 일부 친여 인사들로 구성된 패널들과 부족한 답변 시간으로 유권자들이 충분한 이해를 쌓기에는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국민면접 박근혜'란 주제로 면접 형식의 단독 TV토론을 갖고 4명의 전문가와 일반 국민 참석자의 질문에 답했다. 전문가 패널로는 국민대 홍성걸 교수와 중앙일보 정진홍 논설위원, 서울대 이은주 교수, 단국대 서민아 교수 등이 참여했다.

그는 정 논설위원이 "국민이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불량정치다. 지금 정치가 불량정치가 맞다고 보느냐"라고 묻자, "불신을 많이 받고 있다"

고 답했다.

"여성 대통령이요 하면 국가 안보나 국방·외교 쪽에 약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홍 교수의 질문에 그는 "이제 그런 편견은 없어져야 한다. NLL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과연 북한 미사일에 대처를 잘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박 후보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공약을 집권시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노동 분야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구인·구직미스매칭(불일치) 해소'를 양대 과제로 꼽았다.

그는 반값등록금·무상보육·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진정성을 묻는 질문에 "절대적으로 진정성 있는 정책을"이라며 "저는 실천하지 못할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약속은 정치생명 걸고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박 후보가 밝힌 '중산층 70% 되는 나라', '하우스 푸어 대책' 등은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들이다. 일부 답변은 원문적 수준이어서 패널들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 과거사 인식 문제나 의사 결정 과정의 불투명 문제, 불통 논란,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김종인 행복추진위원장과의 갈등 등 박 후보의 약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관한 질문들은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TV 토론 시작 전 대본 유출 논란이 불거지며 보는 이들의 감을 뒀다.

사회자 송지현 아나운서가 박 후보를 압박하는 질문이 나오는 상황에서 시간 제약이 이유로 질문을 끊거나 머뭇거리는 박 후보의 말을 연결하는 등 박 후보를 비호하는 듯한 진행으로 논란의 소지도 남겼다.

시청률 조사기관 AGB닐슨미디어 리서처에 따르면 이날 지상파 3사가 동시 생중계한 박 후보의 단독 TV 토론 시청률은 16.1%로 집계됐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대전서 12·19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7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대전역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서 18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7일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부산 사상터미널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안, 문 지원 언제...

선거캠프 해단식 이후 본격 지원 전망 문, '새 정치' 고리 국민연대 성사 올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이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지원을 기대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안 전 후보는 선거캠프 해단식이 끝난 이후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문 후보 측은 '새 정치'를 핵심 매개체로 삼아 안 전 후보와의 거리를 좁히고 국민연대를 성사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27일 안 전 후보 캠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안 전 후보가 문 후보를 지원하는 시기는 선거캠프 해단식이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캠프 해단식은 애초 27일 오후로 잡혔으나 지지자의 투신 소동 등을 이유로 연기된 상태다. 해단식은 이른바 28일, 늦어도 이번 주중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후보가 문 후보를 지원하는 방식은 야권의 대선 승리를 위해 여하하면서도 대선 이후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 측 선대위 조직에 합류하는 것보다는 '안철수 스타일'로 문 후보를 도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다. 가능한 방식으로는 지방에 다녀며 본인의 주특기인 20~30대 대상 강연을

하는 방안, 오프라인상에서의 유세 지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또는 이메일을 통한 지지 호소 방안 등이 거론된다.

안 전 후보의 고민이 깊은 만큼 민주당 문 후보 측의 고민도 깊다.

단일화 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오차범위권 하위권 뒤지는 여론조사가 대다수여서 문 후보에게는 안 후보와 이른 시일 내 손을 잡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 후보 측은 정치개혁과 정당혁신을 위한 '새 정치'가 안 후보와 간극을 좁힐 최대의 공통분모라고 보고 있다. 정치개혁을 바라고 안 전 후보를 지지했다 부동층으로 돌아간 중도층·무당파 표심을 붙들겠다는 전략적 판단도 반영된 것이다.

문 후보가 전날 광주에서 범국민 새정치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문 후보 측은 대선 기간 공동 선거운동을 위한 '국민연대'의 틀을 마련하는데도 마음이 급하다. 총사퇴를 결의한 공동선대위원장단이 가동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새로운 진용을 갖춰야 남은 기간 선거운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TV토론, 약점 보완하자"

3차례 앞두고 후보들 말투·표정관리 등 준비 만전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국민 앞에서 직접 검증받는 'TV 토론'을 앞두고 취약점 보완에 나서고 있다.

안 전 후보의 사퇴로 부동층이 20%에 육박하는 등 이번 대선이 막판까지 초박빙 혼전을 거듭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만큼 TV 토론에서 나타나는 각 후보의 호소력 또는 사소한 실수가 대권 승부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 TV토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초청으로 내달 4일, 10일, 16일 3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오르기에 앞서 박 후보는 지난 26일 '국민면접' 방식의 TV토론을, 문 후보는 안 전 후보와의 '단일화 TV토론' 등을 통해 이미 예비주사를 맞은 상태다.

따라서 양측은 당시 TV토론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보완, 상대 후보를 압도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박 후보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가질 것으로 정치권은 관측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초청 토론회에서 문 후보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등 2명의 야권 후보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후보 측은 두 야권 후보에 의한 '협공'에 대비, TV토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진영 정책위의장을 팀장으로, 방송제작사 대표 출신인 박창식 위원, 진성호 전 의원, 백기승 공보위원 등이 머리를 맞댄 상태다.

무엇보다 박 후보 측은 지나친 진지함을 '제1 경계대상'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박 후보 측은 TV토론에서 충분한 양의 답변을 내놓기보다 짧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강구 중이다. TV토론에 적합한 방송용 어 사용, 박 후보의 순발력을 활용한 '추임새' 등을 통해 보다 맛깔스러운 토론을 주도해 나간다는 것이다.

문 후보 측은 정책대결에서는 우위를

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부족한 감성적 접근을 보완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딱딱해 보이는 울사형 말투 등이 많이 고쳐지긴 했지만 유권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TV토론 모두 및 마무리 발언에서 여전히 경직된 모습을 보였다든 내부 평가에 따른 것이다.

박근혜 후보와 정면 대결에서는 '단호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정희 후보 등 여성 후보 2명과 토론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단호함'을 부드럽게 표현해 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실제로 안 전 후보와의 지난 21일 단일화 토론 이후에도 문 후보가 "안 전 후보는) 남북관계 발전을 말할 때 이명박 정부처럼 전제조건을 단다"며 공세적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너무 '공격적'이라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돌아온 손학규, 문 지원 나선다

두달만에 활동 재개...수도권·호남권 민심 훑기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7일부터 문재인 대선후보 지원에 나섰다. 그의 정치 활동은 지난 9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후 두 달여 만이다.

손 고문은 이날 저녁 문 후보 등 당내 인사들이 총집결한 가운데 열린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집중유세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선거지원에 본격 나섰다. 앞서 손 고문은 전날 밤 여의도에서 문 후보와 한 시간가량 회동하고 정권교체의 필요성과 선거지원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손 고문은 지난 9월 22일과 지난 달 23일 문 후보를 만났지만 이후 특별한 정치적 활동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국면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중재 등 역할을 모색하기도

했으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고문은 또 생일이었던 지난 22일 지지 의원들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단일화 국면이 파행을 겪고 있던 점을 감안, 취소하기도 했다.

대선 그는 이날 저녁 마포 한 음식점에서 지지의원들과 변경모임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문 후보 지원 입장을 밝히면서 "단일화 과정에서 내 역할이 있을 수 있었겠느냐"며 "매끄럽게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미 지나간 얘기"라고 아쉬움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고문은 주로 수도권과 호남에서 지원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매를 배우고 수익을 원하는 /동호인 모집

- 모집대상**
 - 처음으로 경매를 배우실 분
 - 경매를 배우고도 수익을 못 내신 분
 - 특수 물건과 부실채권에 관심이 있는 분
 - 중자돈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분
 - 여유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 하실 분
- 특전(무료)**
 - 교재/프린트물
 - 매월 회식/임장활동 참가
 - 교육기간중 1인 1물건 추천
 - 평생 교육/관리분석 혜택
 - 본사 사무실 수시 이용
- 교육기간**
 - 매주 수/금요일 오후 7시~9시
 - 3개월 단위로 반복 순환식 스테디
- 교육내용**
 - 지분물건 가장차인등 특수물건
 - NPL(부실채권)물건
 - 실전사례 중심 스테디
- 회비**
 - 현금 일시불 550만원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자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추천 물건 상담전화 010-5879-0005

수기동 [근린시설 4층] 대652㎡, 건2387㎡ 감정가 14억 최저가 4억5천	숙박시설 [치평동] 대704㎡, 건2042㎡ 감정가 32억 최저가 22억
나주남평 [주유소] 대4428㎡, 건1553㎡ 감정가 10억6천 최저가 6억8천	신안암해 [횡정, 판매시설] 대4706㎡, 건1123㎡ 감정가 18억 최저가 10억
전북김제 [물류센터] 대8076㎡, 건5004㎡ 감정가 25억 최저가 8억	전주시덕진구[유류주점] 대665㎡, 건988㎡ 감정가 11억4천 최저가 5억8천
화순이양 [공장] 대6536㎡, 건2056㎡ 감정가 9억8천 최저가 2억8천	보성읍 [상가] 대685㎡, 건763㎡ 감정가 7억2천 최저가 1억5천
충장로 [근린주택] 대215㎡, 건306㎡ 감정가 4억6천 최저가 2억	목포대양동 [수양관] 대1786㎡, 건408㎡ 감정가 4억8천 최저가 1억7천

임대 및 매매
김수희 공인중개사 010-8567-4600

추천 물건 상담전화 010-8227-7759

북구 대촌동[2층공점] 대지 1506평 > 건물 1031평 감정가 39억8천 매매가 25억5천	화정동 [예식장] 대지 330평 > 건물 1357평 감정가 41억5천 매매가 20억(협의후결정)
군산 [바이오토탄지공점] 대지 3025평 > 건물597평 감정가 99억4천 매매가 38억 (협의후결정)	영암 [노인병원] 대지 2878평 > 건물 2209평 감정가 95억2천 매매가 27억3천
목포 상동[숙박시설] 대170평 건544평 감정가18억6천 최저가13억1천	여수학동[근린상가] 대136평 건513평 감정가15억 최저가 10억5천
무안 망운[숙박시설] 대257평 건346평 감정가11억 최저가6억2천	구례 용방[공점] 대1295평 건363평 감정가13억 최저가9억2천
화순 도곡(무인텔) 대1904㎡, 2,2628㎡ 감정가 26억7천 최저가 18억7천	광산구 신창동[대지] 대150평 감정가8억7천 최저가6억1천
나주중앙동[근린상가] 대330평 건480평 감정가23억1천 최저가16억2천	서구 치평동[숙박시설] 대213평 건617평 감정가32억 최저가22억4천
광산구 월계동[상가] 대135평 건81평 감정가6억3천 최저가3억6천	북구 용전동[공점] 대700평 건423평 감정가22억7천 최저가14억6천

* 함께할 운영자 및 연회원을 모집합니다

▶ 12월중순open 예정인 (주)솔향기맑은터에서 업계최고의 대우로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모집한다.
* 찬모(여)2명, 설갯이(여)1명, 출서방6명, 매니저(남, 여)2명, 매점(여)1명, 경리(여)1명, 영업부(남, 여)2명
* 복리후생 : 4대보험, 퇴직금, 월4회휴무, 급여 : 업계최고 대우 및 성과상여금
* 근무처 : 나주시남평읍 풍림리 171번지 서류점수시 면접, 상담가능(시간외) H.010-7570-7525